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I

2강 격국론 I

서락오의 5용신법과 〈지평진전〉에서의 용신과 상신(相神)의 개념

격국용신법(격용론)의 개념 이해 - 체와 용

체 : 명조의 귀천과 성(파)격 판별

용 : 운의 희기 판별

〈子平眞詮〉 論用神

八字用神 專求月令 以日干配月令地支 而生剋不同 格局分焉
財官印食 此用神之善而順用之者也 煞傷劫刃 用神不善而逆用之者也
當順而順 當逆而逆 配合得宜 皆爲貴格

팔자의 격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일간과 월령을 배합하면 생극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격국이 나뉘진다.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은 좋은 격으로 순하게 쓰는 것들이다.

칠살격 상관격 월겁격 양인격은 사나우므로 꺾어서(역으로) 쓰는 것들이다.
순한 격은 마땅히 순한 방법으로, 역용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역용의 방법으로
쓰여서 배합이 조화로우면 모두 귀격이 된다.

是以善而順用之 則財喜食神以相生 生官以護財 官喜透財以相生 生印以護官
印喜官煞以相生 劫才以護印 食喜身旺以相生 生財以護食

순용한다는 것은, 재격은 식신으로 밀어주거나 정관으로 보호함을 의미한다.

정관격은 재성으로 밀어주거나 인성으로 보호함을 의미한다.

인수격은 관살로 밀어주거나 겁재로 보호함을 의미한다.

식신격은 신왕한 일간이 밀어주거나 재성으로 보호함을 의미한다.

不善而逆用之 則七煞喜食神以制伏 忌財印以資扶 傷官喜佩印以制伏
生財以化傷 陽刃喜官煞以制伏 忌官煞之俱無
月劫喜透官以制伏 利用財而透食以化劫 此順逆之大略也

사나운 격을 사납게 상대한다는 것은,
칠살격은 식신으로 상대함이 기쁘고 재성이나 인성으로 도와선 안 됨을 의미한다.
상관격은 인성으로 상대함이 기쁘고 차선으로 재성으로 상관을 설기한다.
양인격은 관살의 극이 기쁘므로 관살이 없어선 불리하다.
월겁격은 정관으로 극하거나 식상생재하여 비겁의 왕성함을 설기함이 좋다.
이것이 순한 격과 사나운 격을 다루는 대략이다.

今人不知專主提綱 然後將四柱干支 字字統歸月令 以觀喜忌 甚至見正官佩印
則以爲官印雙全 與印綬用官者同論

요즘 사람들은 월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월령 제강을 중심으로 사주 간지 모든 글자를 귀속하여 희기를 판단해야 한단 말이다.
그것도 모르고 정관격에 인성으로 성격한 명을 관인쌍전이라 하며,
인수격에 관으로 성격한 명과 동일한 것으로 말한다.

見財透食神 不以爲財逢食生 而以爲食神生財 與食神生財同論
見偏印透食 不以爲洩身之秀 而以爲梟印奪食 宜用財制 與食神逢梟同論

재격에 식신이 투하면 재봉식생이라 하지 않고 식신생재라 하며
식신격에 재성으로 성격한 명과 동일하게 논한다.
편인격에 식신으로 성격되면 일간의 빼어남을 설기한다 하지 않고,
도식 되었으며 재성으로 인수를 극해야 한다면 도식격과 동일하게 논한다.

見煞逢食制而露印者 不以爲去食護煞 而以爲煞印相生 與印綬逢煞者同論
更有煞格逢刃 不以爲刃可幫身制煞 而以爲七煞制刃 與陽刃露煞者同論
此皆由不知月令而妄論之故也

칠살격을 식신으로 제살하는 격이 인수가 있는 경우,
식을 날리고 인성으로 살을 보호한다 하지 않고 살인상생이라 하며
인수격이 칠살로 성격된 경우와 동일하게 논한다.
칠살격에 양인이 있는 경우 양인이 칠살을 감당하도록 돕는다고 하지 않고,
칠살을 양인으로 제복한다며 양인격이 칠살을 본 경우와 동일시 한다.
이 모든 이유가 월령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然亦有月令無用神者 將若之何 如木生寅卯 日與月同 本身不可爲用

必看四柱有無財官煞食透干會支 別取用神

然終以月令爲主 然後尋用 是建祿月劫之格 非用而即用神也

월령에 용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인묘월의 목 일간은 일간과 월령이 같으므로
자신과 똑같은 오행을 격(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다.

사주에 재성이나 관살 식상이 뜨거나 지지에서 회국을 짜고 있는지 보고,
식재관으로 격을 잡는다.

무조건 월령을 중심으로 격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찾는다.
이에 건록이나 월겁격은 월령에 없는 오행을 격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子平眞詮〉 論用神成敗救應

用神專尋月令 以四柱配之 必有成敗 何謂成
如官逢財印 又無刑衝破害 官格成也

격은 전적으로 월령에서 찾는다.
그리고 사주의 배합에 따라 반드시 성패가 있으니
어떤 경우에 성격되었다고 하는가.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이 있고, 형충파해가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

財生官旺 或財逢食生而身強帶比 或財格透印而位置妥貼 兩不相剋 財格成也

재격이 정관이 있거나, 식신이 있고 일주가 신강하면,
혹은 재격에 인수가 투하되 위치가 떨어져 서로 상극하지 않으면 재격이 성격된다.

印輕逢煞 或官印雙全 或身印兩旺而用食傷洩氣
或印多逢財而財透根輕 印格成也

인수격은 인수가 가벼운데 살로 밀어주면 성격.
정관으로 밀어주면 특히 관인쌍전이라 한다.
혹시 인수가 많으면 재성으로 성격하는데 대신 재가 가벼워야 한다.
인수격은 이렇게 성격된다.

食神生財 或食帶煞而無財 棄食就煞而透印 食格成也

식신격은 재성으로 식신생재를 짜거나, 혹은 칠살을 끼면서 재성이 없거나,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하되 인성도 함께 투하면 식신격으로 성립한다.

身強七煞逢制 煞格成也

칠살격은 신강하고 식상의 제살함이 있으면 성격된다.

傷官生財 或傷官佩印而傷官旺 印有根 或傷官旺
身主弱而透煞印 或傷官帶煞而無財 傷官格成也

상관격은 상관생재를 짜거나,
상관이 왕성할 때 인성으로 상관패인하거나,
일간이 약할 때 살과 인성이 투하거나,
칠살을 끼면서 재성이 없으면 상관격이 성격된다.

陽刃透官煞而露財印 不見傷官 陽刃格成也

양인격은 정관이나 칠살이 투하고 재성이나 인성으로 도우면서,
상관을 보지 않아야 성격이 된다.

建祿月劫 透官而逢財印 透財而逢食傷 透煞而遇制伏 建祿月劫之格成也

월겁격은 정관이 투하고 재성과 인성으로 돕거나,
재성이 투하고 식상이 돕거나,
칠살이 투했는데 식상으로 제복되면 성격된다.

何謂敗 官逢傷剋刑沖 官格敗也 財輕比重 財透七煞 財格敗也
印輕逢財 或身強印重而透煞 印格敗也

무엇을 파격이라 하는가?

정관이 식상을 보아 상관견관하거나 형충에 노출되면 정관격 파격이다.

재격이 재가 가벼운데 비겁이 많으면 재격 파격이다.

또한 재격이 칠살을 생하면 재격 파격이다.

인수격이 재성에 의하여 재극인 되거나,
신강하고 인성도 무거운데 살이 투하면 인수격 파격이다.

食神逢梟 或生財露煞 食神格敗也 七煞逢財無制 七煞格敗也
傷官非金水而見官 或生財生帶煞 或佩印而傷輕身旺 傷官格敗也

식신격이 인수에 의해 도식되거나 재생살을 하면 식신격 파격이다.

칠살격이 재성을 만났는데 제복이 없으면 파격이다.

상관격이 금수상관이 아닌데 견관하면 파격이다.

재생살 하면 파격이다.

일주가 신왕하고 상관이 가벼운데 인성이 도우면 파격이다.

陽刃無官煞 刃格敗也 建祿月劫 無財官 透煞印 建祿月劫之格敗也

양인격이 관살이 없으면 파격이다.

월겁격이 재관이 없는데 살과 인이 투했으면 파격이다.

成中有敗 必是帶忌 敗中有成 全憑救應

何謂帶忌 如正官逢財而又逢傷 透官而又逢合 財旺生官而又逢傷逢合
印透食以洩氣 而又遇財露 透煞以生印 而又透財 以去印存煞

격을 이룬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것은(패격) 반드시 기신을 대동했기 때문이며
무너짐 속에 격을 이룬 것은 것은 구응에 의지함 때문이니 무엇을 기신을 대통한 것이라 하는가?

예컨대 정관이 재성으로 성격되었는데 상관을 만날 때를 말한다.

혹은 정관이 투출했는데 합으로 무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재격이 정관으로 성격되었는데 상관을 만나거나, 정관이 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격에 식신이 투출하여 설기하는데, 다시 재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는데 다시 재성이 드러나 인성을 날리고 살만 남기는 경우를 말한다.

食神帶煞印而又逢財 七煞逢食制而又逢印 傷官生財而財又逢合
佩印而印又遭傷 透財而逢煞 是皆謂之帶忌也

식신격이 살과 인으로 성격되었는데 재성을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칠살격이 식신으로 성격되었는데 인성을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격이 재성으로 성격되었는데 재성이 합으로 묶이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격이 인성으로 성격되었는데 다시 상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격이 재성으로 성격되었는데 살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좋다가 말았으니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다.

何謂救應 如官逢傷而透印以解之 雜煞而合煞以清之 刑沖而會合以解之
財逢劫而透食以化之 生官以制之 逢煞而食神制煞以生財 或存財而合煞

무엇을 구응이라고 하는가.

정관격이 상관으로 파격될 위기에 인수가 투출하여 그것을 해제하거나

정관격이 관살혼잡이 되었는데 합살하여 정관을 맑게 하거나

정관격이 형충 맞았는데 삼합 육합으로 해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격이 겁재로 파격될 위기에 식신이 나타나거나 정관으로 겁재를 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재격이 칠살로 파격될 위기에 식신이 살을 잡고 재성을 생하거나,

재성을 남기고 살을 날리는 경우를 말한다.

印逢財而劫財以解之 或合財而存印

食逢梟而就煞以成格 或生財以護食 煞逢食制 印來護煞 而逢財以去印存食

인수격이 재성으로 파격될 위기에 겁재가 재성을 잡아주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합으로 재성을 날리고 인수를 남기는 경우를 말한다.

식신격이 인성으로 도식될 위기에 살을 취하여 성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재성으로 인수를 잡고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격이 식신으로 성격되었는데 인수가 살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위기다.

이럴 때 재성이 인수를 잡고 식신을 남기는 경우를 말한다.

傷官生財透煞而煞逢合 陽刃用官煞帶傷食 而重印以護之
建祿月劫用官 遇傷而傷被合 用財帶煞而煞被合 是謂之救應也

상관격이 재성으로 성격되었는데 살이 나타나면 위기다.

이때 살이 합으로 날라간 경우를 말한다.

양인격이 관살을 쓰면 성격인데 식상이 나타나면 위기다.

이때 인성이 식상을 잡아주는 경우를 말한다.

월겁격이 정관을 쓰는데 상관이 나타나면 위기다.

이때 상관이 합으로 날라간 경우를 말한다. 혹은 월겁격이 재성을 쓰는데 살이 나타나면 위기다.

이때 살을 합으로 잡아주면 좋다.

이런 경우를 구응이라고 한다.

〈子平眞詮〉 論用神變化

用神既主月令矣 然月令所藏不一 而用神遂有變化

如十二支中 除子午卯酉外 余皆有藏 不必四庫也

故若丁生亥月 本為正官 支全卯未 則化為印 己生申月 本屬傷官

藏庚透壬 則化為財 凡此之類皆用神之變化也

用神은 月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月令의 藏干(支藏干)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가 일어난다.
예컨대 十二地支 가운데 子午卯酉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藏干에 남는 게 있다.

四庫는 물론이다.

예컨대, 해월 정화는 정관격이 되는데 지지에 묘미합을 하면 인수격으로 변한다.
신월 기토는 상관격이 되는데 임수가 천간에 나오면 정재격이 된다.

變之而善 其格愈美 變之不善 其格遂壞 何謂變之而善
如辛生寅月 逢丙而化財為官 壬生戌月逢辛而化煞為印

변화하여 좋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좋아지고,
변화하여 나쁘게 되면 그 격이 더욱 나빠진다.
예컨대 辛金 日干이 寅月에 生하고 天干에 寅의 支藏干 丙火가 透出하면
正財格이 변화하여 正官格이 된다.
壬水 日干이 戌月에 나고 戌의 支藏干 辛金이 透出하면
七殺格이 변하여 印綬格이 된다.

癸生寅月 藏甲透丙 會午會戌 則寅午戌三合 傷化為財 即使透官 可作財旺生官論
不作傷官見官論也

癸水 日干이 寅月에 生하여 本氣인 傷官 甲木은 透出하지 않고 正財인 丙火가
透出하거나, 또는 地支에 午와 戌을 만나 寅午戌 火局을 이루면
傷官格이 변하여 財格이 된다.

이럴 때는 설사 正官인 戊土가 天干에 透出了 해도
傷官見官으로 보지 않고 財旺生官으로 본다.

乙生寅月 月劫秉令 會午會戌 則劫化為食傷 透戌則為食傷生財 不作比劫爭財論
此二者因會合而變化者 因變化而忌化為喜 為變之善者

인월을목은 월겁격이라 할 수 있는데 지지에 인오술 화국을 짜면
겁격이 식상격으로 변했다 할 수 있다.
무토가 투하면 식상생재라 하지 비겁이 쟁재한다고 논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가 회합으로 변화한 것이며,
좋지 않은 것이 좋게 변하였으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다.

何謂變之而不善 如丙生寅月 本為印綬 甲不透干而會午會戌 則化為劫
丙生申月 本屬偏財 藏庚透壬 會子會辰 則化為煞 如此之類亦多 皆變之不善者也

무엇을 두고 변하여 나쁘게 되었다고 하는가.

예컨대 丙火가 寅月에 生하면 본래 印格이다.

그런데 甲木이 透出하지 않고 地支에 午와 戌을 만나 火局을 이루면 印綬가 劫財로 변한다.

丙火日干이 申月에 生하면 본래는 偏財格인데 庚金은 透出하지 않고 壬水가 透出하거나,

地支에서 子 또는 辰이 있어 申子辰 三合 水局을 이루면 偏財가 변하여 七殺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또한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 변화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又有變之而不失本格者

如辛生寅月 透丙化官 而又透甲 格成正財 正官乃其兼格也

乙生申月 透壬化印 而又透戊 則財能生官 印逢財而退位 雖通月令 格成正官 而印爲兼格

변하긴 했는데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인월 신금이 병화가 투하여 관격으로 변했는데,

다시 갑목이 투하면 정재격으로 성격되었다고 보고 정관의 격도 겸한다.

신월 을목이 임수가 투하여 인수격이 되었는데 무토가 투하면 재생관격이 된다.

비록 월령에 통하였다 하더라도 인수격은 물러간다.

정관격이 되어 인수격을 겸한다.

丙生寅月 午戌會劫 而又或透甲 或透壬 則仍為印而格不破
丙生申月 逢壬化煞 而又透戊 則食神能制煞生財 仍為財格 不失富貴
如此之類甚多 是皆變而不失本格者也

인월 병화가 오술의 회국으로 겁격으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갑목이 투하거나 임수가 투하면 인수격이 깨진 것이 아니다.
신월 병화가 임수가 투하여 살격이 되었는데
무토가 투하면 식신이 살을 깨고 재성을 생하니 재격으로 부귀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부지기수고, 변화였으나 본래의 격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子平眞詮〉 論用神順雜

用神既有變化 則變化之中 遂分純 雜 純者吉 雜者凶 何謂純 互用而兩相得者是也
如辛生寅月 甲丙並透 財與官相生 兩相得也 戊生申月 庚壬並透 財與食相生 兩相得也
癸生未月 乙己並透 煞與食相剋 相剋而得其當 亦兩相得也 如此之類 皆用神之純者

격국에 변화가 있는데 변화 가운데 순하고 잡스러움이 있어 순하면 좋고, 잡스러우면 나쁘다.

무엇을 순하다고 하는가. 서로가 상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월 신금이 갑목과 병화가 양투하면 재성과 관성이 서로 상생한다.

신월 무토가 경금 임수가 양투하면 식생과 재성이 서로 상생하여 상득이 된다.

미월 계수가 을목과 기토가 양투하면 편관과 식상이 서로 극하게 되고

상극이 이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니 이 또한 서로 기운을 얻는다.

이런 경우를 용신이 순하다고 한다.

何謂雜 互用而兩不相謀者是也 如壬生未月 乙己並透 官與傷相剋 兩不相謀也
甲也辰月 戊壬並透 印與財相剋 亦兩不相謀也 如此之類 皆用之雜者也

무엇을 잡스럽다고 하는가?

서로가 도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미월 임수가 을목과 기토가 양투하였는데 정관을 상관이 극하는 경우가 되니 나쁘다.
진월 갑목이 무토와 임수가 양투하였는데 인수와 재성이 서로 상극하여 이상해진다.
이런 경우를 잡스럽다고 한다.

〈子平眞詮〉 論用神格局高低

八字既有用神 必有格局 有格局必有高低 財官印食煞傷劫刃 何格無貴何格無賤
由極貴而至極賤 萬有不齊 其變千狀 豈可言傳
然其理之大綱 亦在有情 有力無力之間而已。

팔자에는 반드시 격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격국이 있으면 반드시 명의 고저가 있다.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칠살격 상관격 월겁격 양인격.
이 가운데 어떤 격이라도 귀할 수 있고, 어떤 격이라도 천할 수 있다.
극귀한 명에서 극천한 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명이 있으니
어찌 말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의 대강을 밝히자면 유정함, 그리고 유력과 무력에 있다.

如正官佩印 不如透財 而四柱帶傷 反推佩印
故甲透酉官 透丁合壬 是謂合傷存官 遂成貴格 以其有情也

예컨대 정관격이 인성으로 성격된 경우, 재성 투출로 성격된 것에 못 미친다.
하지만 상관이 건관하고 있다면 인성을 낀 것이 더 상격이다.
유월 갑목이 정관격인데 정화 상관이 투하고 임수 인성이 정임합으로 상관을 날리면,
이를 두고 합상존관이라 하고 귀격을 짠다.
유정함이란 이런 것이다.

財忌比劫 而與煞作合 劫反為用

故甲生辰月 透戊成格 遇乙為劫 逢庚為煞 二者相合 皆得其用 遂成貴格 亦以其有情也

재격은 비겁이 두려운데 살을 합하여 날리면 비겁이 되려 용하다.
진월 갑목이 무토를 띄워 재격이 되었는데 을목 겁재와 경금 칠살이
동시에 드러나면 을경합하여 개이득이 되므로 귀격을 짚는다.
이 역시 유정하다.

身強煞露而食神又旺 如乙生酉月 辛金透 丁火剛 秋木盛 三者皆備 極等之貴 以其有力也
官強財透 身逢祿刃 如丙生子月 癸水透 庚金露 而坐寅午 三者皆均 遂成大貴 亦以其有力也

신강한데 칠살이 드러났고 식신도 왕한 경우가 있다.

유월 을목이 신금이 투했는데 정화가 강하고 목도 성하다면 삼자를 모두 갖춘 것이니
극품의 귀라 할 수 있다. 이를 유력이라 한다.

관성이 강하고 재성이 투하였는데 일간 또한 록이나 양인을 만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월 병화가 계수가 투하고 경금이 노출 되었는데
일간 병화가 인목과 오화에 앞으면 삼자가 균등하니 대귀격을 쥔다. 이 역시 유력이다

又有有情而兼有力 有力而兼有情者

如甲用酉官 壬合丁以清官 而壬水根深 是有情而兼有力者也

乙用酉煞 辛逢丁制 而辛之祿即丁之長生 同根月令 是有力而兼有情者也 是皆格之最高者也

유정과 유력을 겸한 경우가 있다.

갑목이 유금을 정관으로 쓰는데 임수가 정화 상관을 날리고,

심지어 임수의 뿌리가 튼튼할 때 유정과 유력을 겸했다고 한다.

유월 을목이 신금이 뺏고 정화로 제살하고 있는데 정화는 월령 유금에 장생하기도 하므로, 이럴 때 유력과 유정을 겸한 최고의 격국으로 본다.

如甲用酉官 透丁逢癸 癸剋不如壬合 是有情而非情之至
乙逢酉逢煞 透丁以制 而或煞強而丁稍弱 丁旺而煞不昂
又或辛丁並旺而乙根不甚深 是有力而非力之全 格之高而次者也

유월 갑목이 정화와 계수가 뜨면 상관을 날리는 건 맞는데,
임수가 상관을 합하는 것에 못 미친다.
이를 두고 유정한 가운데 비정함으로 흐르는 것이다.
유월 을목이 정화로 제살할 때 살은 강한테 정화가 아주 약하거나,
정화는 왕한테 살이 약하거나 혹은 신금 정화는 모두 왕한테 을목의 뿌리가 약하면
유력한테 그렇게 유력한 건 아니라 격의 높이가 차석에 머무른다.

至如印用七煞 本為貴格 而身強印旺 透煞孤貧 蓋身旺不勞印生 印旺何勞煞助
偏之又偏 以其無情也

인수격이 칠살을 쓰면 본래 귀격이다.

그러나 일주와 인성이 모두 왕강한데 칠살이 투하면 고독하고 가난하다.

신왕한데 인성의 생을 원할 것이며, 인수가 왕한데 살의 조력이 필요하겠는가?

치우치고 치우쳤으니 이를 두고 무정하다 한다.

傷官佩印 本秀而貴 而身主甚旺 傷官甚淺 印又太重 不貴不秀

蓋欲助身則身強 制傷則傷淺 要此重印何用 是亦無情也

又如煞強食旺而身無根 身強比重而財無氣 或夭或貧 以其無力也 是皆格之低而無用者也

상관패인은 본래 귀격이다. 그런데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매우 약한데

인수가 태중하면 귀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않다.

신강한데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겠으며 심지어 약한 상관을 인수가 패면 상관은 망가진다.

이럴진데 어떻게 인수를 쓰겠는가. 이를 두고 무정하다고 한다.

또한 살도 강하고 식신도 강한데 일간이 무근하거나,

신강하고 비겁도 중한데 재성이 무력하면 요절하지 않으면 가난하다. 이를 두고 무력하다고 한다.

모두 하격이며 쓸모가 없다.

然其中高低之故 變化甚微 或一字而有千鈞之力
或半字而敗全局之美 隨時觀理 難以擬議 此特大略而已

그러나 고저에 있어서 변화가 심미하니 혹 한 글자가 천군만마가 되기도 하고,
반 글자가 사주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수시로 뜯어봐도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기 어렵다.
위의 경우는 특히 중요하다 싶어 요점 정리만 한 것 뿐이다.

〈子平眞詮〉 論用神因成得敗因敗得成

八字之中 變化不一 遂分成敗
而成敗之中 又變化不測 遂有因成得敗 因敗得成之奇

팔자라는 게 변화의 묘리가 있으니
비록 성격과 파격으로 나뉘지지만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성격된 줄 알았지만 파격인 경우가 있고
파격된 줄 알았지만 성격되는 기묘함이 있다.

是故化傷為財 格之成也 然辛生亥月 透丁為用 卯未會財 乃以黨煞 因成得敗矣
印用七煞 格之成也 然癸生申月 秋金重重 略帶財以損太過 逢煞則煞印忌財 因成得敗也
如此之類 不可勝數 皆因成得敗之例也

상관격이 재로 변하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월 신금이 지지에서 해묘미 재국을 짜더라도
정화가 있으면 재성이 칠살을 생하므로 성격인 줄 알았지만 파격이 되는 것이다.

인수격이 칠살을 쓰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월 계수가 칠살로 살인격을 짜고 재성을 기피한다 하더라도,
금이 중중하여 재성으로 금을 눌러줘야 할 정도라면 오히려, 칠살을 쓰는 경우 파격이 된다.
이런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모두 성격인 줄 알았으나 파격이 되는 경우이다.

2장 격국론I

官印逢傷 格之敗也 然辛生戊戌月 年丙時壬 壬不能越戊剋丙 而反能洩身為秀 是因敗得成矣
煞刃逢食 格之敗也 然庚生酉月 年丙月丁 時上逢壬 則食神合官留煞
而官煞不雜 煞刃局清 是因敗得成矣

관인격이 상관을 보면 파격이 된다.

그러나 무술월의 신금이 년에 병화 시에 임수가 있으면, 임수 상관이 병화를 극하지 못한다.
반대로 일간을 설기하는 역할을 하니 파격인 줄 알았으나 성격이 되는 경우이다.

칠살과 양인이 함께 있는 경우 식상을 보면 파격이 된다.

하지만 유월 경금이 병화와 정화가 천간에 있을 때 임수가 투하여 정임합으로 살을 남기면
관살이 잡스럽지 않으니 살인격이 청하게 된다.

〈子平眞詮〉 論用神配氣候得失

論命惟以月令用神為主 然亦須配氣候而互參之
譬如英雄豪傑 生得其時 自然事半功倍 遭時不順 雖有奇才 成功不易

사주는 월령을 위주로 통변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후를 참고하여 배합을 해야만 한다.

비유컨대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도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

2장 격국론I

是以印綬遇官 此謂官印雙全 無人不貴

而冬木逢水 雖透官星 亦難必貴 蓋金寒而水益凍 凍水不能生木 其理然也

身印兩旺 透食則貴 凡印格皆然

而用之冬木 尤為秀氣 以冬木逢火 不惟可以洩身 而即可以調候也

인수격이 관이 있으면 관인쌍전이라 하여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겨울 목이 인수격이 되고 금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겨울의 금은 수를 얼리고 얼은 물이 목을 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는 食神이 透하면 貴하게 된다.

대부분의 印綬格이 그렇지만 冬木은 특히 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冬木이 불을 만나 洩氣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傷官見官 為禍百端 而金水見之 反為秀氣

非官之不畏夫傷 而調候為急 權而用之也 傷官帶煞 隨時可用 而用之冬金 其秀百倍
傷官佩印 隨時可用 而用之夏木 其秀百倍 火濟水 水濟火也

상관견관은 재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금수상관은 도리어 정관이 있어야 빼어나다.

관성이 상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조후가 훨씬 급하기 때문이다.

상관대살로 수시로 쓸 수 있으니 겨울의 금은 화가 있어 백 배로 빼어나게 된다.
상관패인으로 수시로 쓸 수 있으니 여름의 목은 수가 있어 백 배로 빼어나게 된다.

화는 수를 조절하고 수는 화를 조절한다.

傷官用財 即為秀氣 而用之夏木 貴而不甚秀 燥土不甚靈秀也

春木逢火 則為木為通明 而夏木不作此論 秋金遇水 則為金水相涵 而冬金不作此論
氣有衰旺 取用不同也 春木逢火 木火通明 不利見官 而秋金遇水 金水相涵 見官無礙

상관용재라 하면 바로 귀격인데 여름 목은 귀하더라도 빼어나기가 어렵다.
마른 토라 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봄목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라 한다.
하지만 여름 목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을 금이 수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라 한다.

하지만 겨울 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기에는 쇠왕의 흐름이 있으므로 취용함에 있어 동일하지가 않다.

봄목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이라 하고 관을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가을 금이 수를 통해 금수상함을 짜면 관성이 있어도 구애받지 않는다.

假如庚生申月 而支中或子或辰 會成水局 天乾透丁 以為官星

只要壬癸不透露干頭 便為貴格 與食神傷官喜見官之說同論 亦調候之道也

食神雖逢正印 亦謂奪食 而夏木火盛 輕用之亦秀而貴 與木火傷官喜見水同論 亦調候之謂也

가령 신월 경금이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짜고 천간에 정화로 관성이 뜬다고 하더라도
임계수가 투하여 관성을 때리지만 앓는다면 귀격으로 논한다.

앞서 식신이나 상관이 건관해도 좋다는 이론과도 동일하다.

모두가 조후의 이치 때문이다.

식신이 인수를 보면 도식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화가 성하면 인수가 가볍게 투해야 귀하다.

목화상관이 수를 좋아한다는 이론과도 동일하다.

이런 것을 조후라 일컫는다.

〈子平眞詮〉 論相神緊要

月令既得用神 則別位亦必有相 若君之有相 輔者是也

如官逢財生 則官為用 財為相 財旺生官 則財為用 官為相 煞逢食制 則煞為用 食為相

월령으로부터 격이 정해지면 상신이라는 것도 있다.

상신이란 임금을 보좌하는 것이다.

정관격이 재성으로 성격됨에 있어 정관이 격이라면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격이 정관으로 성격되면 재성이 격이라면 정관이 상신이 된다.

칠살을 식신으로 제하고 있는 경우, 칠살이 격이라면 식신이 상신이다.

然此乃一定之法 非通變之妙 要而言之 凡全局之格 賴此一字而成者 均謂之相也

傷用神甚於傷身 傷相甚於傷用

如甲用酉官 透丁逢壬 則合傷存官以成格者 全賴壬之相

그러나 이처럼 일정한 법수로 논하기는 어렵고 통변의 묘를 살려야 한다.
요컨대, 사주 전체는 글자 하나에 의해 성격이 되는데 이를 상신이라 한다.

격이 다치면 몸이 다치고, 상신이 다치면 격이 다친다.

유월 갑목이 정화와 임수가 동시에 투하면,
임수 인성이 정화 상관을 함으로 잡아주므로 성격된다.

이때 전적으로 임수 상신의 공이 크다.

戊用子財 透甲並己 則合煞存財以成格者 全賴己之相 乙用酉煞 年丁月癸
時上逢戊 則合去癸印以使丁得制煞者 全賴戊之相

자월 무토가 정재격이 되는데, 갑목 칠살과 기토 겁재가 투했다고 하자.
재격은 칠살을 보면 파격인데, 기토가 칠살을 합으로 잡아주므로 성격된다.

이때 전적으로 기토 상신에 의지한다. 유월 을목은 칠살격이 된다.

천간에 정화 식신과 계수 인성이 동시에 투하면 계수가 식신을 힘을 못 쓰도록 극을 한다.

이때 무토가 나타나 계수를 합하면 식신으로 하여금 제살의 공로를 베풀게 하니
전적으로 무토 상신에 의지한다.

癸生亥月 透丙為財 財逢月劫 而卯未來會 則化水為木而轉劫以生財者 全賴於卯未之相
庚生申月 透癸洩氣 不通月令而金氣不甚靈 子辰會局
則化金為水而成金水相涵者 全賴於子辰之相

해월 계수가 병화가 투하면 월겁격이 재성을 만난 건이다.
이때 묘목과 미토가 월지를 끼고 합을 하면 수가 목으로 변하여 식상이 되니 재성을 생하게 된다.
전적으로 묘목과 미토 상신에 의지한다.
신월 경금이 계수로 설기하면,
계수가 월령에 통하지 않았으므로 금을 제대로 설기하지 못한다.
이때 자수와 진토가 월지 신금을 끼면 금이 수로 변하여 금수상함으로 설기가 아름답다.
전적으로 자수와 진토 상신에 의지한다.

相神無破 貴格已成 相神相傷 立敗其格

如甲用酉官 透丁逢癸印 制傷以護官矣 而又逢戊 癸合戊而不制丁 癸水之相傷矣

상신이 파손되지 않으면 귀격이고 이미 성격된 것이며,
상신이 파손되면 파격이다.

유월 갑목 정관격이 정화와 계수가 투하면 계수가 정화를 극하여 관성을 보호하는데,
이때 무토가 나타나 계수를 합하면 정화 상관을 극하지 못하니 계수 상신이 손상된다.

丁用酉財 透癸逢己 食制煞以生財矣 而又透甲 己合甲而不制癸 己土之相傷矣
是皆有情而化無情 有用而成無用之格也

유월 정화는 재격이다. 재격은 칠살을 보면 파격이 된다.

계수와 기토가 모두 투하면 기토가 계수 칠살을 잡고 재성을 생한다.

이때 갑목이 나타나 기토를 합하면 기토가 계수를 잡지 못하니 기토 상신이 손상된다.

이에 유정한 것이 무정해지기도 하고, 유용한 것이 무용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凡八字排定 必有一種議論 一種作用 一種棄取
隨地換形 難以虛擬 學命者其可忽諸

팔자가 배정되면 반드시 의미 있는 글자가 하나 있게 되는데,
어떤 글자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글자는 사주를 버려놓는다.
그러나 이리저리 왔다갔다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명을 논하려는 자가 어찌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子平眞詮〉 論雜氣如何取用

四墓者 沖氣也 何以謂之雜氣 以其所藏者多 用神不一 故謂之雜氣也
如辰本藏戊 而又爲水庫 爲乙餘氣 三者俱有 於何取用 然而甚易也
透干會支取其清者用之 雜而不雜也

사묘고 辰戌丑未는 충기인데 어찌하여 잡기라고 하는가.
지장간이 많아서 용신이 하나가 아니므로 잡기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辰土는 본기에 戊土를 저장하고 또 水의 창고이며 乙木 여기도 있다.
세 개를 갖추고 있으니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겠는가.
그러나 매우 쉬운데 투간한 것과 회를 이룬 것 중에 청한 것이 용신이다.
그래서 잡기이지만 잡하지 않게 된다.

2장 격국론I

何謂透干 如甲生辰月 透戊則用偏財 透癸則用正印 透乙則用月劫是也 何謂會支
如甲生辰月 逢申與子會局 如甲生辰月 逢申與子會局 則用水印是也 一透則一用
兼透則兼用 透而又會 則透與會並用 其合而有情者吉 其合而無情者則不吉

무엇을 투간이라 하는가.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 戊土가 투간하면 편재가 용신이 된다.

癸水가 투간하면 정인이 용신이고 乙木이 투간하면 월겁재가 용신이 된다.

무엇을 지지의 회합이라 하는가.

甲木이 진월에 태어나 申子가 국을 이루면 水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하나가 투출하면 용신은 하나이고 겹하여 투출하면 모두 용신으로 겸한다.

투출하고 회합하면 투출한 것과 회합한 것을 병용하고

그리하여 그 배합이 유정하면 길하고 배합이 무정하면 길하지 못하게 된다.

2장 격국론I

何謂有情 順而相成者是也 如甲生辰月 透癸爲印 而又會子會申以成局 印綬之格 清而不雜 是透干與會支合而有情也 又如丙生辰月 透癸爲官 而又逢乙以爲印 官與印相生 而印又能去辰中暗土以清官 是兩干並透合而情也 又如甲生丑月 辛透爲官 或巳酉會成金局 而又透己財以生官 是兩干並透 與會支合而有情也

무엇을 유정하다고 하는가. 순하고 상성하는 것이다.

가령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癸水가 투간하면 인격이다.

그런데 지지에서 또 申子가 수국을 이루었다면 인수격이 되어 청하고 잡하지 않게 된다.

이러면 투간한 것과 지지에 국을 이룬 것이 합하여 유정한 것이다.

丙火가 辰月에 태어나 癸水가 투간하면 정관격이고 또 乙木이 있으면 인수인데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며 인수는 또 辰 속의 숨은 土를 제거하여 정관을 맑게 해 준다. 이런 경우 두 천간이 나란히 투간하여 합당하게 되니 유정한 것이다.

또 甲木이 丑月에 태어나 辛金이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혹 巳酉 金局을 이루고

또 己土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조하면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출하여 지지의 회합과 유정한 것이다.

2장 격국론I

何謂無情 逆而相背者是也 如壬生未月 透己爲官 而地支會亥卯以成傷官之局 是透官與會支 合而無情者也
又如甲生辰月 透戊爲財 又或透壬癸以爲印 透癸則戊癸作合 財印兩失 透壬則財印兩傷 又以貪財壞印 是兩干並透
合而無情也 又如甲生戌月 透辛爲官 而又透丁以傷官 月支又會寅會午以成傷官之局 是兩干並透 與會支合而無情也

무엇을 무정하다 하는가. 거역하고 서로 배반하는 것이다.

가령 壬水가 未月에 태어나고 己土가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가 회합하면 상관의 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투간한 정관과 지지의 회합은 서로 무정하게 된다.

또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재격이다.

또 壬癸가 투간하면 인성이 되는데 癸水가 투간하면 戊癸합이 되므로 재성과 인성 둘 다 잃게 되고

壬水가 투간하여도 재와 인이 둘 다 상하므로 탐재괴인이 된다.

이것은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간하여 서로 무정한 것이다. 甲木이 戌月에 태어나 辛金이 투간하면 정관격이 된다.

그러나 丁火 상관이 투간하고 월지에 또 寅午가 회합하면 상관의 국이 되므로

이는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출하거나 또 지지 회합과 무정한 것이다.

2장 격국론I

又有有情而卒成無情者何也 如甲生辰月 逢壬爲印 而又逢丙 印綬本喜洩身爲秀 似成格矣 而火能生土 似又助辰中之戊 印格不清 是必壬干透而支又會申會子 則透丙亦無所礙 又有甲生辰月 透壬爲印 雖不露丙而支逢戌位 戌與辰沖 二者爲朋沖而土動 干頭之壬難通月令 印格不成 是皆有情而卒無情 富而不貴者也

또 유정한 것이 바뀌어 무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壬水가 투간하면 인격이 된다.

그러나 丙火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설하여 빼어나게 되어 인수가 반기므로 마치 성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火는 土를 생하는데 辰土 속의 戌土를 도와서 인격이 청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壬水가 천간에 투하고 지지에서 또 申子가 水局을 이루어야 투출한 丙火가 장애를 주지 못하게 된다.

또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壬水가 투간하면 인격이다.

비록 丙火가 없어도 지지에 戌土가 있어서 辰戌沖이 되면 둘이 붕충이 되어 土가 동하므로

천간에 壬水가 월령에 통근하기 어려워 인격은 성격되지 못한다.

이 모두는 유정함이 변하여 무정하게 된 것으로 부자는 되어도 귀하지 못하다.

2장 격국론I

又有無情而終有情者何也 如癸生辰月 透戊爲官 又有會申會子以成水局 透干與會支相剋矣
然所剋者乃是劫財 譬如月劫用官 何傷之有 又如丙生辰月 透戊爲食 而又透壬爲殺 是兩干並透
而相剋也 然所剋者乃是偏官 譬如食神帶殺 殺逢食制 二者皆是美格 其局愈貴 是皆無情而終爲有情也

또 무정한 것이 마침내 유정하게 변하니 어떤 것인가.

癸水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또 申子가 회합하여 水局을 이루고 있으면 투간한 것과 지지 회합은 상극이 된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비유하자면 월겁격에 정관이 있어 이것을 손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丙火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식신격이다.

그러나 또 壬水가 투간하면 칠살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투간하면 서로 상극이 된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은 편관이니 비유하자면 식신대살로 칠살이 식신의 극제를 만난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좋은 격국이며 더욱 귀격이 된다. 이는 모두 무정한 것이 마침내 유정하게 된 것이다.

〈子平眞詮〉 論墓庫刑沖之說

辰戌丑未 最喜刑沖 財官入庫不沖不發 此說雖俗書盛稱之 然子平先生造命 無是說也
夫雜氣透干會支 豈不甚美 又何勞刑沖乎 假如甲生辰月 戊土透豈非偏財 申子會豈非印綬
若戊土不透 則辰戌相沖 財格猶不甚也 至於透壬爲印 辰戌相沖 將以累印 謂之沖開印庫可乎

辰戌丑未는 형충을 가장 기뻐하는데 재성과 관성이 입고되면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들은 속서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평선생이 명리이론을 만들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무릇 잡기가 천간에 투간하고 지지에서 회합하면 어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찌 형충 되기를 힘쓰겠는가.
가령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출하면 어찌 편재가 아니겠는가.
申子가 회합하면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만약 戊土가 투출하지 않고 辰戌이 충을 한다면 재격은 오히려 매우 맑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壬水인 인수가 투출하면 인격이 되는데 辰戌이 충하면
이로써 인수에게 해가 되는데도 충하여 인수의 창고를 열어야 한다면 옳겠는가.

況四庫之中 雖五行俱有 而終以土爲主 土沖則靈 金木水火 豈能以四庫之沖而動乎
故財官屬土 沖則庫啓 如甲用戊財而辰戌沖 壬用己官而丑未沖之類是也

然終以戊己干頭爲清用 干既透 則不沖而亦得也

하물며 사고의 속에는 오행이 모두 있지만 결국은 土를 위주로 하게 된다.

土는 충을 하면 영험하겠지만 그러나 金木水火는 어찌 사고의 충으로 멀쩡하게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재관이 土에 속할 경우 충으로 창고를 열수 있는 것은 가령 甲木이 戊土 재성이 용신인데
辰戌沖이 되는 것과 壬水가 己土 정관이 용신인데 丑未沖이 되는 것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엔 戊己가 투간하여도 청해야 쓰는 것이고
천간에 투출하였으면 충하지 않아도 또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2장 격국론I

至於財官爲水 沖則反累 如己生辰月 壬透爲財 丁生辰月 透壬爲官 戌沖則傷官 豈能無害
其可謂之逢沖而壬水之財庫官庫開乎 今人不知此理 甚有以出庫爲投庫 如丁生辰月
壬官透干 不以爲庫內之壬 干頭透出 而反爲干頭之壬 逢辰入庫 求戌以沖土 不顧其官之傷

심지어 재관이 水라면 충으로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가령 己土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가 투출하면 재격인데 戌이 와서 충을 할 경우 겁재가 동하는데 어찌 이로움이 있겠는가.

丁火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가 투간하면 정관격인데 戌이 충하면 정관이 손상되는데 어찌 해가 없다 하겠는가.

그러니 충으로 壬水의 재고와 관고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 옳다 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심지어 출고를 투고라 한다.

가령 丁火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 정관이 투간하면 창고 속의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였다 하지 않고

오히려 천간에 투출한 壬水가 辰土 속에 입고되었으니

戌로써 土를 충하여 구해야 한다고 하니 이는 정관이 손상되는 것은 돌아보지 못한 것이다.

更有可笑者 月令本非四墓 別有用神 年月日時中一帶四墓 便求刑沖
日臨四庫不以爲身坐庫根 而以爲身主入庫 求沖以解 種種謬論 今人掩耳

더욱 가소로운 것은 월령이 본래 사묘가 아니고 따로 용신이 있는데도
연월일시 가운데 하나라도 사묘가 있으면 형충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며
일간이 사고에 임하면 일간이 앉은 자리 곁에 뿌리가 있다 하지 않고
일간이 입고되었으므로 충으로 해소하여 구해야 된다고 하니
온갖 종류의 잘못된 이론이 많으므로 요즘 사람들은 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2장 격국론I

然亦有逢沖而發者何也 如官最忌沖 而癸生辰月 透戊爲官 與戌相沖 不見破格 四庫喜沖
不爲不是 卻不知子午卯酉之類 二者相仇 乃沖剋之沖 而四墓土自爲沖 乃沖動之沖
非沖剋之沖也 然既以土爲官 何害於事乎 是故四墓不忌刑沖 刑沖未必成格 其理甚明 人自不察耳

그러나 충을 만나면 발하는 것도 있으니 어떤 것인가.
가령 정관은 충을 가장 꺼리는데 癸水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戊土와 서로 충을 하여도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사고가 충을 반기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子午卯酉 등은 두 개가 서로 원수가 되어 이에 충극하는 충을 하지만
그러나 사묘의 土는 스스로의 충이기에 충동하는 충이지 충극하는 충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土가 정관이 되었는데 어찌 충이 된다고 해롭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사묘가 형충을 반드시 꺼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충이 되어야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치가 이리도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뿐이다.

〈子平眞詮〉 論四吉神能破格 論四凶神能成格

財官印食 四吉神也 然用之不當 亦能破格 如食神帶煞 透財為害 財能破格也
春木火旺 見官則忌 官能破格也 煞逢食制 透印無功 印能破格也
財旺生官 露食則雜 食能破格也 是故官用食破 印用財破

정재·정관·정인·식신은 네 가지 길신이지만 그러나 그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면 또한 격을 깰 수 있다.
예컨대, 식신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는 경우에 재성이 투출하면 해가 된다.
봄 목은 화가 왕성하면 관성 보기를 꺼려 하니 관성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편관격은 식신을 보면 제압되니 인성이 투출하면 공이 없게 되어 인성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정재격이 왕성하여 정관을 생하는 데 식신이 드러나면 잡스러우니 식신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식신을 쓰면 깨어지고, 정인격은 정재를 쓰면 깨어진다.

2장 격국론I

煞傷梟刃 四凶神也 然施之得宜 亦能成格. 如印綬根輕 透煞為助 煞能成格也
財逢比劫 傷官可解 傷能成格也 食神帶煞 靈梟得用 梟能成格也 財逢七煞 刃可解厄 刃能成格也
是故財不忌傷 官不忌梟 煞不忌刃 如治國長搶大戟 本非美具 而施之得宜 可以戡亂

편관·상관·편인·양인은 네 가지 흉신이지만 배합이 적절하면 또한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정인격의 뿌리가 가벼운데 편관이 투출하여 도우면 편관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재격이 비겁을 만나면 상관으로 풀 수 있으니 상관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식신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는데 편인을 쓰면 편인은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재격이 편관을 만나면 양인으로 액을 풀 수 있으니 양인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재는 상관을 꺼리지 않고, 정관은 편인을 꺼리지 않으며, 편관은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예컨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긴 창과 큰 극은 본래 좋은 도구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난을 평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